

전남도, 도서지역 안정적 물 공급 나선다

단기 처방·장기적인 체질 개선 병행 '투트랙' 전략 수립

식수원 개발 '응급처방'·영광·완도 등에 지하수 저류댐

전남도가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가뭄과 식수난으로 고통받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에 나선다. 단기적인 식수원 확보부터 장기적인 수원다변화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 섬 주민들의 숙원인 안정적인 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유인도는 목포, 여수, 신안 등 12개 시·군, 257개다. 약 7만 5000세대 15만여 명이 거주 중이다. 그러나 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하천 발달이 어렵고 저수지 규모가 작

아 가뭄에 취약하다. 대부분 단일 식수원에 의존하는 탓에 가뭄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식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섬 주민들은 급수선과 급수차에 의존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2022~2023년, 완도군 부황제의 경우 '1일 급수, 5일 단수'라는 극한의 제한급수를 시행했고, 진도 조도면 저도 등 14개 섬은 지금도 물탱크에 의존해 운반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단기 처방과 장기적인 체질 개선

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통해 416억원을 투입, 5개 시·군 10개소에 대한 응급 처방에 나선다. 가뭄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저관로 6개소, 식수전용저수지 1개소, 송수관로 1개소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내륙지역의 노후 상수관을 정비(10개 시·군 16개소, 1035억 원)해 누수를 막고, 여기서 확보된 여유 수량을 도서지역으로 돌리는 연계 전략도 추진한다. 또 단일 수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수시 초도·손죽도·소거문도 3곳에는 연내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물 공급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 핵심은 수원 다변화다. 이미 영광 안마도(2021년)와 완도 보길도(2023년)에서 성

공적으로 안착한 '지하수 저류댐'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하수 저류댐은 땅속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가둬두는 방식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수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성공 모델을 완도 소안도와 청산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각각 70억 원 규모의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2035년까지 8517억원을 투입,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2단계)을 통해 섬 지역의 낡은 수도관을 전면 교체, 물이 새는 것을 원천 차단해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적 해결에도 힘쓴다. 환경부가 수립하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망을 도서지역까지 연결하는 계획과 배분량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방

침이다. 빗물이용시설, 이동식 해수담수화 선박 운용 건의,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인 병입수 제공 등 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는 향후 시·군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도서지역 식수원 현황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을 발주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중장기 물 관리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은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라며 "가뭄이 와도 단수 걱정 없는 '물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학술심포지엄 지난 15일 열린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전통의 혁신과 재료의 확장: 동아시아 동시대 미술에서 수목이 작동하는 방식'을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국내외 학자와 미술평론가 등이 참여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시, 진도군, 해남군 등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도 제공>

도농기원, 신품종 '대추형 방울토마토' 개발

당도 높고 면적당 수량 우수

전남농업기술원이 신품종인 '대추형 방울토마토' <사진>를 개발했다.

16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평균 무게 28.5g으로 대추처럼 길쭉한 모양이 특징이다. 당도 또한 9.2브릭스로 비교적 높다. 과육이 단단해 익으면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는 열과가 적고, 꼭지 빠짐 현상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단위 면적당 수량도 우수하다. 10a(아르)당 생산량은 3.4t로 타 품종에 비해 높다. 또 토마토반점 위조바이러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시들음병 등 질병에도 강하다.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최근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기호도 평가에서 당도, 과즙, 식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외관 선호도 또한 시중 유통 품종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신



품종은 우수한 품질과 재배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품종보호 출원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전남지역 주요 토마토 재배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품종에 대한 무의는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독감 예방접종 시작

전남도는 오는 22일부터 겨울철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의 경우 1회 접종 대상은 오는 29일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2회 접종 대상은 22일부터 맞을 수 있다. 임신부는 29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10월 15일~), 70~74세(10월 20일~), 65~69세(10월 22일~) 6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접종대상자는 일정에 맞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하반기 전남 일자리박람회 23일 순천시 개막

공기업·대기업 홍보관 운영

50개 기업 현장·온라인 면접

'2025 하반기 전남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30개 기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고 20개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박람회를 통해 35개 직종에서 1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포스코,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 등 11개사가 참가한 공기업·대기업 기업홍보관이 운영되고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관에도 10개사가 참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여수고

용노동자청 등 관련 기관들도 박람회에 참여해 각 기관의 일자리정책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에서는 현장 면접·상담을 비롯, 이력서 작성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컨설팅, 퍼스널컬러코칭, 이미지메이킹 등 1대1 맞춤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산업을 알아볼 수 있는 전남 미래산업관과 고용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Job 스토리 고용24'를 운영하고 이차전지, 철강산업, 스마트 제조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마련된다.

희망 구직자는 전남일자리정보망이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일자리진흥원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30여개 기관이 협력하여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관광재단-전남교통연수원 협약

전남관광재단은 16일 전남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전남교통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전남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임직원 및 관광객 중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교통연수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투어를 개발·운영하는

한편, 관광 현장에서의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관광재단 김영신 대표이사는 "관광지에서의 안전은 전남 관광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협약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IGFA 보험GA협회